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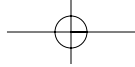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칼 바르트(Karl Barth)의 성경관에 대한 비판

1. 신적 계시에 대한 증거로서의 성경

바르트의 성경에 대한 설명은 크게 나누어서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신적 계시에 대한 증거로서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여기에 해당된다. 먼저 신적 계시에 대한 증거로서의 성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바르트에게 ‘증거’(witness)라는 단어는 사실상 일종의 ‘제한’(limitation)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계시에 대한 증거라고 부를 때는 성경과 계시 사이에 그런 간격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바르트는 증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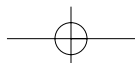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증거는 그것이 증거하는 바와 절대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 성경에서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인간의 말들을 대하게 되며 이러한 말들과 그리고 이 말이라는 수단들을 통하여 주권자이신 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 자체로서는 계시가 아닌 이러한 수단들, 이 말들, 즉 이 증거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제한에 해당된다(Karl Barth, *Church Dogmatics*, I/1, 463, 이하 CD로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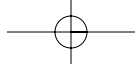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그러나 증거가 이렇게 부정적인 차원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증거는 그 자체로서 계시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 바르트는 이 측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가운데 성경은 계시로부터 구분되지 아니한다. 성경은 단순히 계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으로서 이는 매개체적이며 그 결과 계시를 우리들에게 적용시킨다. ... 그러나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을 통한 계시는 우리를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계시의 직접적인 수용자가 되도록 만들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실제적 증거는 증거 하는 바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 증거하는 바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 만약 우리가 정말로 성경의 언어들에 그 인간성(humanity) 속에서 듣는다면, 만약 우리가 이를 증거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분명히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들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수단을 통하여 증거가 우리에게 실제적 임재와 사건이 되었음을 뜻한다(CD I/2, 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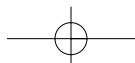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증거는 이런 수단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를 올바르게 듣고 수용한다면 증거의 부정적인 요소인 '제한'이 극복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증거되는 바의 실제적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증거는 이중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계시에 대한 증거는 단순히, 그리고 곧 바로 계시 자체와 동일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증거는 계시로부터 구분되는 독특성(distinctness)을 지니고 있음에 동시에 분리될 수 없는 통일성(unity)을 지니고 있다. 이 통일성은 계시가 증거와 동 떨어진 채 들려지거나 이해될 수 없음과 관련된 것이다. 육신을 덧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거나 듣지 못한 우리는, 성경의 증거 없이는 이 계시에 관해서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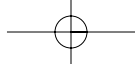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바르트는 그가 사용하는 ‘증거’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의 사도성(apostolate)과 연관시킨다(CD I/2, 487ff).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막 3:14), 그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을 사도들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다(엡 4:11). 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며(눅 10:16) 또한 그들이 받은 특별 계시를 잘 알고 있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었다(CD I/2, 488ff).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바르트는 보았다. 예수께서 처음 등장하신 날이 곧 성경이 성취되는 날이었다(눅 4:21).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었으며 그들의 증거는 기대(expectation)에 대한 증거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사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며 따라서 그들의 증거는 회상(recollection)의 증거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의 이런 차이가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자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고유한 통일성은 더욱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CD I/2, 48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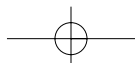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차원에서 성경 저자들이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가 드러난다. 바르트는 성경 저자들의 이러한 독특성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는 이들의 독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시에 관한 세 가지 특정한 시기(time)를 언급한다(CD I/1, 164). 첫째, 하나님 자신이 직접적이며 원천적인 언급을 통하여 계시하신 때를 들 수 있다. 원래 계시가 주어졌던 시기를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계시도 포함된다. 둘째, 이 계시에 대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 받은 바를 증거하는 시기를 생각할 수 있다. 셋째, 교회의 시기로 주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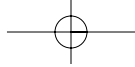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계시에 대한 증거를 기초로 선포하는 시기이며 이 선포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에 의해 통제된다. 여기에 이들의 독특성이 드러난다. 즉 그들은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증인으로서 그들의 직분은 교회에 있어서 전적으로 독특한 것이었다. 그들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들의 증거인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에 연관될 수 있다. 성경 저자들의 독특성뿐만 아니라 성경적 증거의 독특한 위치도 여기에서 확인된다. 성경 저자와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단지 이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계시에 접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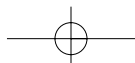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 바르트가 증거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제한의 개념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르트의 계시 개념에서 발견될 수 있다. 먼저 그는 “계시는 항상 사건(event, Ereignis)이다”라는 명제를 내세운다. 이 명제는 증거라는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개념에도 바르트는 성경과 증거를 날카롭게 구분한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과거 계시는 아니다. 단지 성경은 하나님의 과거 계시를 인증한다(attest). 여기에서 ‘인증하다, 증명하다’(attest)라는 단어는 결정적인 구별(distinction)을 포함한다. 인증한다는 것은 항상 그 자체를 넘어서 다른 것을 지향하는 결정적 방향성을 뜻한다. 성경적 증거의 기능은 그 자체를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과 계시 사이에 직접적 일치(identification)라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르트의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치를 기대하거나 가정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이러한 일치는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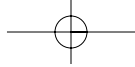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사건에 해당된다. 이는 계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임을 뜻한다. 따라서 바르트는 계시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단지 하나의 직접적 계시만이 있을 뿐인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계시를 뜻한다. 그 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내세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Deus dixit*)”의 의미이다(CD I/2, 127). 따라서 성경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바르트는 이를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베데스다 연못의 물과 비교한다(CD I/2, 126). 이 물은 그 자체로서 어떠한 치유력을 지니고 있지 않았지만 위로 들려 올려 졌을 때 그러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때때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이러한 “때때로”(from time to time)의 진리가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인간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freedom of God's grace)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하나님은 그의 계시에 있어서 항상 주권자로 작용하신다. 이는 항상 그의 계시이며 결코 인간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르트의 계시 개념에 제한성의 개념을 설명하는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언어에 나타난 세속성(worldliness)이라고 부르는 것이다(CD I/2, 188ff). 이 용어는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세상에 속하거나 이 세상에서 도출된 형태로 항상 인간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사실상 “하나님의 자기표현으로 적합한 형태가 아니라 부적합한 수단에 해당된다. 이는 그 내용에 걸맞지 않지만 이와 대립된다. 이는 그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감춘다(CD I/2, 189).” 하나님의 말씀은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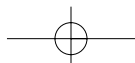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조 세계의 언어로 다가올 뿐 아니라 타락한 피조 세계의 언어로 다가온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중적 간접성(twofold indirectness)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성의 형태와 타락한 피조성의 형태로 다가온다(CD I/2, 191). 그가 주장하는 계시의 세속성이라는 개념에는 그가 주장하는 변증법적(dialectical)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르트는 이 계시의 언어가 지닌 세속성이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며 핵심적으로 우리는 세속적이라고 바르트는 주장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세속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에게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르트는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표현까지도 서슴없이 사용한다: “그의 말씀의 세속성에 도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 도달하는 것이다(CD I/2, 192).” 따라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불행한 방해물에 의하여 우리에게 가려져 있으며 그 후에 이러한 방해물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었다”고 생각해서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CD I/2, 192). 진실은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가리웠으며 이렇게 스스로를 가리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바르트는 주장한다(CD I/2, 192). 여기에도 바르트가 말하는 소위 ‘변증법적’ 사고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바르트에게 이 사실들은 순수한 사랑과 자비를 뜻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려워지지 않음(unveiledness)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곧 모든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바르트는 믿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움이라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세속성이라고 바르트는 해석한다. 따라서 바르트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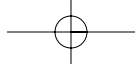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러한 세속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측면에서 은혜의 말씀이다(CD I/2, 193)”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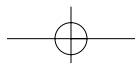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여기에서 우리는 왜 바르트가 ‘증거’라는 개념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그의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를 더 강조하고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시가 증거라는 차원을 통해 부여받은 세속성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고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해석하였다. 둘째, 그는 계시가 하나님의 행위이기만을 바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사실상 그는 증거에 세속성을 부여한다. 셋째,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오만(*hubris*)의 경우와 이와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증거’를 중요시한다. 즉 그가 이를 중요시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바르트가 주장하는 계시는 단지 하나 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계시. 단지 그 분 안에서 우리는 직접적 계시를 지니게 된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CD I/2, 49).”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Deus praesens*).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시간이 되셨음을 뜻하는 것이다: “말씀이 시간이 되셨다(CD I/2, 50).” 말씀이 성육신하신 시간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 시간과 관련된 것이며 역사적 시간의 일부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덧입으신 시간, 즉 그의 생애(AD 1-30)에 해당된다(CD I/2, 58). 이는 사실상 시간의 주인이신 분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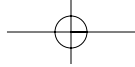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간이며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는 실제적이며 성취된 시간에 해당된다(CD I/2, 50). 이 시간은 확실하게 그 이전의 시간(pre-time)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된 계시의 기대에 대한 증거와 관련된 시간인데 곧 구약의 시기에 해당된다(CD I/2, 70). 이 이전의 시간이 바로 성취의 시간에 속하며 이는 사실상 성취의 시간과 병행하지만 이에 종속되기도 한다. 이는 또한 계시의 시간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진정한 기대는 계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취된 시간은 확정된 시간으로 연결된다(CD I/2, 101). 이 시간이 바로 계시의 회상의 증거에 대한 시간이며 신약의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간 또한 성취의 시간에 속한다. 그러나 이 시간은 앞서 언급된 그의 생애에 해당되는 계시의 시간임이 분명하지만 바르트는 여기에서 더욱 신중을 기한다. 계시의 시간을 더욱 축소하여 그의 부활 이후의 40일이라는 기간으로 제한시킨다(CD I/2, 114). 이 시기는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을 가리킨다. 이 시기가 바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순수한 현존’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이는 종말의 실존이 현실화되는 시간이며 또한 새로운 종말론적 기대가 시작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그래서 바르트는 “우리는 그의 계시를 우리 이전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를 우리 이전에 지니고 있으므로 또한 우리는 이를 우리 앞의 시간에 지니고 있다(CD I/2, 116)”고 밝힌다.



2.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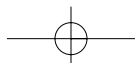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바르트는 앞서 언급되어진 계시의 증거로서의 결과물인 성경이 전적으로 인간적인 책이며 더 정확하게 이는 이스라엘 정신의 산물이라고 결론을 내린다(CD I/2, 510). 그렇다면 이는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뜻한다. 즉 무오한(infallible) 하나님의 말씀이 유오한(fallible)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CD I/2, 529). 이런 측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성경의 유오성을 인정하면서 고등비평(higher criticism)을 수용한다. 그렇지만 그가 모든 종류의 성경 고등비평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그는 19세기 성경비평 이면에 존재하였던 개념들을 비판하였고 이들이 성경 본문 뒤에 숨어있는 소위 '이면의 본문'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즉 이들의 주장은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성경 이면에 가상적인 정경이 따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를 통하여 사실상 성경 내에 존재하는 본문과 본문이 의도하는 주제와의 연결 고리가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성경비평가들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추구하게 된 것은 숨겨져 있는 본문이며 이를 찾아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그 결과 그들은 성경 본문과 그 본문이 지닌 내용을 상실하게 된 셈이며 이는 결국 신학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CD I/2, 494).

이런 상황에서 바르트가 의도하는 바는 성경이 어떤 측면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그는 성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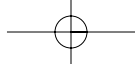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신적 계시에 대한 원천적이며 적법한 증거로서의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CD I/2, 502).” 그러나 그의 이러한 선언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였던 축자적 영감설(verbal inspiration)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르트가 이 영감설을 두드러지게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교리는 영감 교리에 관한 것이며 교회는 이러한 견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힌다(CD I/2, 518).

이러한 축자적 영감설에 대한 부인은 바르트가 계시에 대한 이중적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계시에 대한 이중적 개념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성경에는 신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측면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며 이러한 구별을 구체화하여 성경의 어떤 부분이 신적이며 어떤 부분이 인간적인가를 가려내는 것이 신학자의 임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르트는 이러한 ‘수평적’ 사고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형식(증거)으로부터 그 내용(계시)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CD I/2, 492). 이는 성경을 배우려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본문에 집중해야 함을 뜻한다: “우리는 성경의 본문에 매달려야 한다. 이 본문에 확증된 기대와 회상에 순복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계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CD I/2, 492).” 내용과 형식, 계시와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구별이 불가능한 것이다. 바르트는 이를 ‘간접적 동일성’(indirect identity)이라고 불렀다(CD I/2, 499). 여기에서 간접적이라는 형용사는 어떤 경우에도 그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로 결코



대체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바르트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직접적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동일성은 가정된 동일성이며 이러한 동일성은 성경 본문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만약 이런 동일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신적 계시를 변질(transmutation)시키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들을 통해서 그리고 단지 이 본문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오로지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이 기도는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 태도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고 바르트는 주장한다.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간접적 동일성을 직접적 동일성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CD I/2,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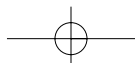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평적 이중론(horizontal dualism)을 거부하고 어떤 주장을 전개하였는가? 이는 수직적 이중론(vertical dualism)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적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이 성경에 나란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중론을 부인하고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날카롭게 대립시킨다.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런 차원에 있어서 인간의 말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바르트는 주장한다. 그러나 바르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는 지적인 차원에 관한 것으로 인식론과 관련된 질문에 해당된다. 만약 성경이 직접적 동일성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가정 아래, 인간의 말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들려지는 인간의 말이 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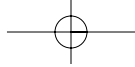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세 가지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실재성은 그 자체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 의해 획득되는 이에 관한 지식도 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며 이 인식은 말씀 자체를 통해서 실제화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자체로부터 시작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CD I/1,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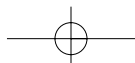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바르트가 이 인용문에서 의도하는 바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연적 인식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음을 뜻한다.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접촉점(point of contact)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고를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계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 능력 이외의 일이며 이는 하나님 편에 그 우선 순위가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 편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셔야 가능함을 뜻한다. 계시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행위이며 이 계시를 증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들음(hearing)을 조성하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밝힌다(CD I/1, 223-24). 이것이 의도하는 바는 계시를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건' 임을 깨닫게 하는 데 놓여 있다(CD I/1, 261). 믿음이란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스스로를 열어 놓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는 이러한 열려 있음에 그 이상도 아니지만 그 이하도 결코 아니다. 진정한 열려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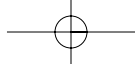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성되며 이는 진정한 이해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바르트는 주장한다. 즉 진정한 이해는 진정한 열려 있음의 결과에 해당된다.

수직적 이증론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은 존재론적인 것이다. 만약 성경이 그 자체로서 계시에 대한 증거로서 인간적이며 유오한 것이라면, 어떻게 바르트가 여전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른 인간의 글들에 비교해서 성경이 지니고 있는 우선성(priority)에서 시작한다(CD I/2, 502). 이러한 우선성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CD I/2, 503).” 여기에 등장한 동일성(즉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결코 존재론적 동일성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신앙을 통해서 부여된 동일성을 뜻한다. 즉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믿음이라는 상호연관성 속에 주어진 것이다(CD I/2, 123-24)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르트의 주장은 사실상 믿음에서 비롯된 선언이며 여기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지녔던 직접성 동일성의 차원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CD I/1, 123). 그러나 바르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종적 판단자가 인간의 믿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믿음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믿음은 단지 성경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그 기능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 때문에 성경의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르트





는 선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르트의 강조점은 동사 “다가오신다”의 시제에 놓여 있다. 이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즉 성경의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다가온다. 이러한 현실성은 바로 성경의 구체성(concreteness)으로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고 보았다(CD I/2, 530).

